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4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57 호

총기 50년 새봄, 생동하는 제19대 통리원

사무감사, 원의회, 복지재단 정기이사회 등 연이어 개최



총기 50년 정기 사무지도 감사가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통리원에서 실시되었다. 사진=전서호 기자

총기 50년 새봄을 맞아 종단 정책을 의결하는 회의들이 일련되게 따라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종단 주요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 전망이다. 3월 한 달 동안 사감원의 정기 사무 지도 감사를 시작으로 원의회와 재단이사회 연석회의, 불교총지

중사회복지재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고, 총기 49년을 총 결산했다. 총기 50년 정기 사무지도 감사는 사 감원장 범경 정사를 비롯해 사감위원 행원심 전수, 서령, 도우, 남혜 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통리원 부장실

에서 진행됐다. 감사는 통리원, 법장원, 유지재단, 종단 산하단체 등 총기 49년(2020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지출과 용역 및 물자 구매계약, 예산운영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중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

점적으로 점검했다.

제189회 원의회와 제 129회 재단 이사회의 연석회도 지난 3월 23일 통리원에서 열렸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 및 정인화 전수 등 유지재단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석회에서는 총기 49년 통리원, 전당건설, 재단사무국의 결산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종의회에 의결안을 넘겼다. 같은 날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2020년 제1회 정기이사회도 통리원에서 개최되었다. <관련기사 2면>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상반기 49일 불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 마다 소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이 애중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주셨다.”며, “의결 안전 외에도 종단 현안 문제와 창종 50주년을 앞두고 추진 중인 종책과 기념사업 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며,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재원 기자

총지중 본산 새단장에 한창

37년만에 처음, 5월 내 완공



불교총지중 통리원이 지난 2월 16일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공사를 시작했다. 지붕 수리, 건물 외벽 공사, 낡은 담벼락 철거 등 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 대 수선할 예정이다. 1984년에 건축된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공사는 오는 5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제 96회 춘계 강공회 개최

4월 14일부터, 경북 청송서

제 96회 춘계 강공회가 오는 4월 14일, 15일 양일간 개최된다. 첫날 오후 2시부터 개강 법회를 시작으로 종령 범공 예하의 강훈과 승단 총회가 진행될 계획이며, 통리원장이 주재하는 강의와 종단 현안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왕산 관불을 끝으로 강공회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 강공회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편 총기 49년 결산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제155회 정기 중앙종의회 회의는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포항 수인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심과 환희심 증장하는 불사에 최선’

불사법요위, 스승용 새 불사법요 편찬

앞으로 종단의 대중불사는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며, 동참불사로 이어진다. 또 동참불사에서 신묘장구대다리를 포함한 천수경(계청)과 광명진언은 염송하지 않는다. 합동불사는 △영식천도 △진택·축원 △영식·축원

불사법요 중 집공자가 서원사향과 사원 사정을 감안하여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한다.

불사법요를 관장하는 불사법요위원회(위원장: 범경 정사)는 1년 여간의 연구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새 불사법요집을 완성하여 춘계강공에

전국 스승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불사법요는 전통 밀교 불사 의식인 육자의계를 중심으로 두고 사원과 스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던 염송 절차와 방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집공자와 동참자의 독송과 합송을 정확히 구분했다. 또 영식천도불사 법요에는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이 합송을 위해 삽입되었으며, 진택·축원불사 법요는 천지팔양신주경의 세 가지 버전을 실어 집공자가 선택해서 사용토록 했다. 그동안 법요에서 제외되었던 병고해탈 및 기타 경축불사 법요도 포함되었다.

교정부장 승원 정사는 “불사법요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신심을 높이고 환희심을 증장하는 불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내 교도용 불사법요도 새로 편찬할 계획중이다.”고 밝혔다.

중/조/법/어

오래 지은 선업과는 그 복보도 장원하고
장원하게 지은 악은 그 재앙도 오래니라

지 면 안내

5면 이달의 법문 / 묘홍 전수
8면 밀교의 특징 <4>

7면 인터뷰 / 통리원장 인선 정사
10면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④

총기 50년 제96회 춘계 강공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현직 스승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_ 총기 50년 4월 14일(수) ~ 15일(목) 1박2일

대상 _ 불교총지중 현직 스승 | 장소 _ 경북 소노벨 청송

※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조치 예정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총기 49년, 1억 원 이상 사회 곳곳에 자비 회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회 결산 보고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총기 50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3월 23일 통리원에서 열렸다.

종단이 총기49년 지난 한해 코로나19 성금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학사업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1억여 원 이상 자비나눔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단 산하 어린이 돌봄 시설 및 노인 복지 기관도 추가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에서 어

르신복지까지 평생복지로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이하 복지재단)이 지난 3월 23일 통리원에서 개최한 총기 50년 제 1차 정기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물품지원을 위해 불교TV 성금모금 캠페인에 회사한

3천만 원을 포함하여, 빈곤가정 생활 보조, 독거노인 반찬 배달, 불우 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에 4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 어린이집, 복지관, 실버센터 등 산하 기관에 6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 특히 강남구 다함께키움센터(세곡)와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를 수탁함에 따라 작년까지 8

곳에서 총 10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또 총기 48년에 이어 불교기자협회 장학금을 비롯해 네팔과 필리핀의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사업도 새로이 돌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후원금의 증가다. 작년 한 해 재단으로 보내진 후원금은 총 4천 8백여만 원에 이르며, 총기 48년에 대비해 1천여만 원 이상 증가된 금액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복지재단에 후원 중인 후원자를 비롯해 이름을 밝히지 않는 후원자들의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국 김태원 과장은 “사회복지재단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다시 마음을 나누는 일을 대신 하는 곳”이라며, “소중한 후원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후원 동참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의=02-552-1083, 후원계좌= 우리은행 122-177171-13-104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총지종 본산 리모델링 지진불사 봉행

불교총지종 본산 통리원의 외벽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3월 8일 총지사(주교: 원당 정사) 서원당에서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불사는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으며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하여 스승과 종무원들이 참석하여 공사가 무탈하게 회향하기를 서원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미뤄져왔던 구조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창종 5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새롭게 단장

될 통리원이 종단 교화의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현 통리원 건물은 당초 1984년 유치원 사옥으로 운영되다가 1997년부터 통리원이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통리원과 종령실, 통리원장실, 법장원, 밀교연구소, 참찬단실 등과 부속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공사는 건축 37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공사로 지붕 수리, 건물 외벽 공사, 담벼락 철거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부디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보원 종사 49재 총지사에서 봉행



지난 1월 24일 입적한 기로 스승 보원 종사의 49재가 3월 13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총무부장 원당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이날 통리

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유가족 등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보원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통리원장, 종단협 사무총장과 환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이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도각 스님은 “앞으로도 부회장 종단인 총지종과 통리원장 인선 정사께서 불교계가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인

사했다. 이에 인선 정사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도각 스님께서도 종단협과 한국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해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에는 통리원 총무부장 원당 정사와 종단협 양정술 사무차장이 함께 자리했다.

조현래 종무실장 통리원 방문

서원당 참배 후 불교현황 논의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종무실장이 지난 3월 26일 통리원 종본산을 예방하여, 서원당과 종조전 참배 후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불교 현

황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호 종무관, 조현래 종무실장, 통리원장 인선 정사, 총무부장 원당 정사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4월 28일 서울시청 앞 온라인 봉축 점등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표어가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Light the Lantern of Hope and Healing!)’로 선정되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대규모 연등행렬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이하 봉축위)는 올해 공모에 접수된 450건 중 선정된 봉축표어를 발표하고 “국민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발원하며, 우리 모두 함

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염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방역지침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연등행렬은 하지 않고, 다만 종단 및 사찰, 단체 등은 지역 특성에 맞게 연등놀이를 운영하고, 연등법회는 5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또 해마다 서울 시내 중심에서 진행되었던 봉축 점등식은 4월 28일 시청 앞 광장에서 최소 인원만 동참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 7일부터 30

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일원에서는 ‘전통등 전시회’를 연다. 이밖에도 봉축위는 각자의 공간에 등을 다는 ‘희망의 등 달기 캠페인’, ‘온라인 연등행렬’ 등 일상에서 함께 하는 대면, 비대면 연등회 지침을 밝혔다.

봉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담은 등을 밝힘으로써 개개인의 건강과 국난극복을 이루는 연등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통 사찰 ‘템플스테이’ 무료 개방

의료인, 소상공인, 문화예술계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대응 의료, 보건, 방역 관계자들과 코로나 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 여행업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전국 100여 개 사찰에서 운영하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역 지침으로 인해 공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까지 참가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이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스님)은 작년에 이어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와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열고, 1인 1회, 최대 3박 4일까지 동반 1인을 포함한 템플스테이 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신청할 경우 코로나19 대응 근무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 근무자는 재직증

명서로도 증명 가능하다.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는 소기업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까지 사부대중이 산사에서의 휴식으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어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

내마음의 등불

밀행사 행원심 전수 편

물건(物件)을 먼 곳에 두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生角)하면 성불(成佛)하기 어렵게 여겨지지만은 자성불(自性佛)이 곧 자기(自己)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生覺)하면, 성불(成佛)의 가능성(可能性)을 가지게 된다. 진리(眞理)가 먼 데 있다고 생각(生覺)한즉, 깨치기가 어렵지만은 만약(萬若) 생활(生活) 중에 있다고 안다면, 곧 능(能)히 체득(體得)하여 깨칠 것이다.

〈종조법설집 185-186쪽〉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밀행사 행원심 전수님은 실보사 해원정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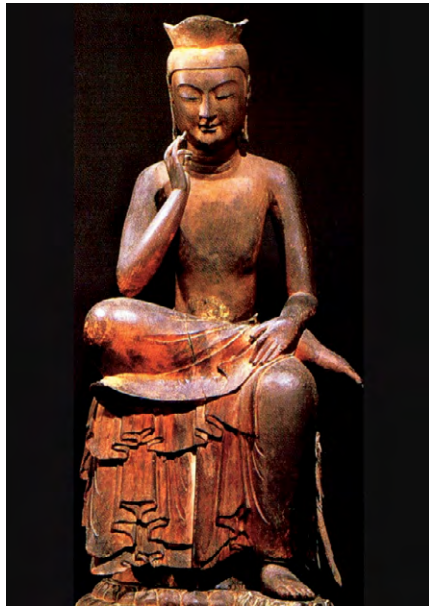
가까운 내 마음에서 극락(極樂)을 찾자

극락(極樂)이 서방(西方) 십 만억(十萬億) 국토(國土)의 밖에 있다고 여긴다면, 죽은 후(後)에나 왕생(往生)할 곳이라고 생각(生覺)할 것이다. 모름지기 자기(自己) 마음 가운데 극락(極樂)이 있음을 알지니라. 현세(現世)가 극락(極樂)인즉, 이것이 곧 가없는 고해(苦海)에서 머리를 돌려 저 언덕을 바라보라고 한 비유(比喻)인 것이다.

불상의 탄생

지혜의 눈

유럽 문명은 간다라 미술에 영향
반가사유상은 정신세계를 형상화



일반적으로 불상(佛像)은 인도의 마투라 지방과 간다라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투라 불상은 인도적 색채가 짙다면,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그리스적 요소가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아편전쟁을 고비로 유럽은 비로소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대외팽창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발전한 학문이 바로 박물학 등입니다. 간다라 지방에서 발견된 불상들도 처음에는 민속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예술은 유럽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연구가 깊어지면서 알렉산더 제국이 남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통해 그리스 문명과 해당지역의 토착 문명이 융합한 산물임을 깨닫게 되면서 간다라 미술은 예술로 분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상(神像)조각의 전통은 그리스 신상(神像)조각의 전통은 그리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세 종교는 모두 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신전인 판테온(Pantheon, 만신전(萬神殿))은 우상으로 몰려 철저히 파괴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조각한 인물상도 파괴되었죠. 불교는 앞선 세 종교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붓다로 화(化)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였기에 인간 중심적인 성격의 그리스 종교와 공통분모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두 문명이 만나서 탄생한 불교경전으로 밀린다 광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더스강 서쪽에 있던 그리스계 왕이었던 밀린다가 묻고 승려인 나가세나가 대답하는 형태를 띤 경전으로 그리스 문명과 인도 문명의 행복한 만남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민속품으로 분류되던 불상 조각이 왜 예술품으로 격상하게 되었을까요? 유럽인들은 간다라 미술에 그리스의 영향력을 파악하면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미술’이라는 틀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 문명은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끼쳤고, 여기에서 탄생한 불상은 이후 동아시아 문명권에 까지 전파되었다는 틀을 세운 것이죠. 이렇듯 유럽 문명이 기원전에는 인도에 전파되어 간다라 미술을 낳았듯이 지금 인도와 중국에 ‘진출’하여 선진 문명을 전파하는 것은 아시아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선전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서구인에 의해 규정된 아시아의 특징이 아시

아인들에게까지 내면화되어 부지불식간에 제국주의 열강의 시각을 당연시하는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명의 빛은 항상 변방에서 일어나 역으로 문명의 중심지까지 영향을 줍니다. 비록 그리스 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간다라 불상은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것은 입상(立像)에 국한된 것이고 좌상(坐像)은 뛰어난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스 조각상에서 서있는 입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과 달리 간다라 미술은 입상보다 좌상에서 뛰어난 작품이 나옵니다. 이러한 불상 조각은 동아시아로 전파되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불상 조각으로 이어집니다. 불상의 용모의 변화를 보면 간다라 불상은 코카서스 인종의 모습이라면 동아시아 불상은 몽골인의 특징이 담겨있지요. 그리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조각상을 탄생시키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리스 미술이 간다라 지방에서 불교와 만나 불상을 탄생시켰고, 그 동쪽 끝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조각을 낳기에 이릅니다. 일본에 있는 목조(木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그것이지요. 벨베테레의 아폴로처럼 인체비례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반가사유상은 정신세계를 형상화하는데 치중하고 있지요. 신상(神像)의 전통이 동서 문명의 양쪽 끝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진이지만 그리스 조각의 대표적인 벨베테레의 아폴로 상과 반가사유상을 함께 두고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연명의료 35

법상 정사

임종 전 환자의 7가지 마음가짐



심보이야기 18

법선 정사

유루종자와 무루종자

1. 스스로를 용서하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리면서 삶을 정리한다. 삶을 회고하다가 잘못된 일이 생각나면 스스로를 용서하고 세상을 떠난다.

2. 가족을 이해하자

죽음 뒤에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가족 관계이므로, 휴여라도 가족에 대한

이 나오면서 영혼이 정화된다.

4. 확신과 용기로 직면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지만, 마지막이자 엄청난 성장의 기회,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이 확실하므로, 확신과 용기를 갖고 죽음을 직면한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짧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 내적으로 충만

힘으로 이웃에게 보시를 베풀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자비와 사랑으로 삶을 마무리한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무슨 자비와 보시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자비와 보시 행위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므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비와 보시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세상을 하직한다.

중환자실에서 맞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므로, 모든 의학적 노력을 기

산스크리트로 유루(有漏)는 사스라바(sasrava), 무루(無漏)는 아나스라바(anasrava)이다. 루(asrava)는 더러움·번뇌라는 뜻이며, 따라서 본래 유루란 번뇌에 오염된 것, 무루는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유루·무루(有漏·無漏)

종자는 범어 bija의 번역이다. 씨앗으로부터 싹이 나오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믿음의 씨앗’ ‘원인의 씨앗’등 종종 비유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아뢰야식 가운데 선척적으로 존재하는 본유종자가 있고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축적한 신훈종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자에는 유루의 여러 현상을 일으키는 유루종자가 있고, 보리의 원인이 되는 무루종자가 있다.

아뢰야식에 있는 무루종자(無漏種子)는 모든 유정들이 본래로 지니고 있는 청정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무루종자는 일반적인 선과 악업 종자와는 달리 아뢰야식의 청정무구한 진여성에 보존된다. 그러나 무루종자라 할지라도 수행에 의한 반복적인 훈습이 있지 않으면 현행할 수 없게 된다.

유정들은 유루의 번뇌성에 집착하여 유루종자만이 아뢰야식과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면서 인과를 지속하고 있으며, 무루종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아뢰야식에 무루종자가 보존되어 있어서 본성은 무루종자일지라도 유정들의 번뇌에 의하여 유루종자만이 현행하기 때문에 아뢰야식은 무루종자가 나타날 때까지 주로 유루종자와 관련하여 역할을 하게 된다.

종자 훈습의 종류

유식은쟁에 하나가 종자(種子)의 유래에 대해 묻는다. 종자는 본래부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래는 없던 것이 훈습에 의해 새롭게 생겨난 것인가? 이 논쟁은 과거 호월(護月), 난타(難陀), 호법(護法) 논사(論師)들이 종자가 훈습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본래부터 종자가 있다는 본유설(本有說)이 있고, 종자는 항상 새롭게 훈습된다는 신훈설(新熏說)이 있으며, 본유의 종자도 있고 신훈의 종자도 있다는 합성설(合成說)도 있다.

세 명의 논사 가운데 호월은 유루(有漏)·무루(無漏)를 막론하고 그 어떤 종자도 훈습에 의해 새로이 조성되는 것은 없으며, 예외 없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한다. 호월 논사에 의하면, 현행의 훈습을 통해서는 단지 기존의 본래부터 있던 종자의 증장(增長)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에 반해 난타 논사는 유루·무루를 막론하고 종자는 모두 훈습으로 인해 생겨난다고 한다.

본유설의 한계

본유설은 선업과 악업 등 모든 업력은 아뢰야식에 본래부터 종자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며, 그 업력에 의하여 현재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자는 새로 조성된 것이 아니며, 보존된 종자에 의하여 현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본래부터 우리들에게 무루종자가 없다면 누구도 성불할 수 없기 때문에 본래로 종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유설은 불변하는

종자의 지속적인 작용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현행에 의하여 새롭게 생기는 종자를 부정함으로써 선악이나 수행의 과보로 나타나는 결과를 수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신훈설과 합성설

신훈설은 종자는 원래 훈습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자의 모습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라 주장한다. 본래부터 종자가 있다면 업력이 고정되어서 더 이상의 진보가 있을 수 없게 되며, 항상 새롭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무루종자 역시 본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 의하여 점차 무루의 훈습이 지속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없던 무루종자가 새롭게 생긴다는 점에서 설명의 한계가 보인다.

합성설은 본유설과 신훈설을 합한 것으로, 본래부터 저장되어 있는 종자가 있고, 새롭게 훈습되는 종자도 있다는 것이다. 본래부터 저장되어 있는 종자는 무루종자와 같은 근원적인 것과, 이생에 태어 날 때에 전생에서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롭게 훈습되는 종자는 현행을 통하여 훈습되는 것을 말한다.

본유와 신훈의 종자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걱정과 집착, 불필요한 요구는 삼가해야

불편한 심경이 남아있다면 죽기 전에 모두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영원히 헤어지기 전에 마음을 담아가족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작별 인사는 평생 이어온 관계를 마무리하는 데 꼭 필요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평생토록 간직할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

3. 화해의 마음으로

존엄한 죽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마무리가 안된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증오와 죄책감 같은 감정인데, 이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용서와 화해다. 특히 용서는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이자 상처로 얼룩진 관계를 완성하고 평화를 찾는 핵심이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원한과 억울한 감정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흘출 털어내고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 맺힌 것이 풀리고 환희의 기쁨

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5. 종교생활로 통찰

죽음 이후에 누리는 삶은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이를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준비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줌으로써 남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처럼 삶의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은 평생시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임종이 임박해서야 가능한 일이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소원하면서 종교생활에 총력을 기울인다.

6. 이웃에 자비와 보시

자비와 보시는 삶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직 남은

을인 연후에 죽음이 불가피할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집착하지 않는다.

7.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환자 자신은 무의미한 의료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강행하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에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문서화 해 둔다. 또한 가족과 의료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에게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제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만 온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때이므로 세상사에 대한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는다.

남겨진 이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청산해야 할가분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유언장·사전의료의향서·사전장례의향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주변을 정리한 연후에는 모든 일상적인 일에서 관심을 끊어 낸다.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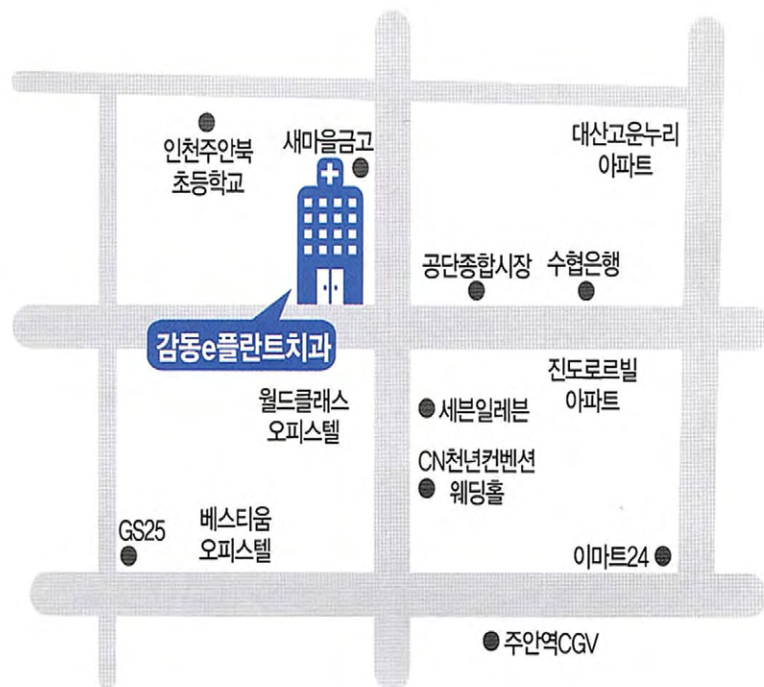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네 가지 큰 은혜

‘대승본생심지관경’에 부처님께서 오백 장자에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세간과 출세간의 은혜 있는 곳을 분별하여 말하리라. 세간과 출세간의 은혜에 네 가지가 있으니, 부모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와 국가의 은혜와 삼보의 은혜이다. 이 네 가지 은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입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행복의 바탕에는 무수한 인연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먼저, 어버이에 효순 하면 자식 또한 효순 한다. 내가 부모의 큰 은혜를 모르는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 어찌 효순 하겠는가?

지관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세상에서 어떤 이가 가장 부자이고 어떤 이가 가장 가난한 자인가? 하고 물으시면서 부모님이 계시면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난하다 하느니라, 아버지가 계심은 한낮에 해가 있음과 같고 어머니가 계심은 달이 밤하늘에 있음과 같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와 달이 사라진 암흑천지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효도하고 봉양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을 모시듯 부모를 모시라” 이것이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고사하고 자신이 힘들고 고단하면 오히려 부모를 탓하고 조상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 자라면서 조그마한 섭섭함이라도 있으면 원망하고 이를 되갚으려 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할 때 부모님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는가 되돌아보고 참회하면 마음 아프게 하던 자식이 바른길로 나아가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본체(本體)가 바르면 그림자가 저절로 바르게 되듯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면 자식 또한 바른길로 나아갑니다.

부모 조상은 뿌리가 되고 나는 가지가 되며 자손은 열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듯이 자손을 잘 되게 하려면 열매에만 공을 들이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자손이 잘되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것은 본능적인 마음인 내리사랑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 하는 것은 치사랑이라 엄청난 선행이고 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웃과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는 효도는 하품의 효라 하고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중품의 효가 되며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어드리는 것은 상품의 효이며 이것이 최상의 효도입니다.

중생의 은혜
중생들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모르는데 어찌하여 사회에서 나를 도와주겠는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맑은 공기, 물, 그리고 흙과 빛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살리는 일체 법계의 은혜를 알고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나라의 은혜
국민이 된 의무로서 나라 일을 도울지니 내가 이 나라의 큰 은혜를 모르는데 어찌 모든 천왕들이 나를 도와주겠는가?

오늘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만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편안해야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 보장됩니다. 창종 이후 우리 밀교 행자들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뜻에 따라 나라의 부국강병과 국민안락을 서원합니다.

진호국가불공을 할 때는 나라를 수호한다는 마음으로 절량 한술이라도 희사하고 정성 들여 불공하면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공을 하는 기간에 한순간이라도 원망심이 일어나면 중간에 불공을 깨뜨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바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세계는 과장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 불공하면 그 공덕은 결국 내게로 돌아옵니다.

삼보의 은혜
우치사건으로 삼보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찌 범왕 제석들과 법계 호법성중들이 나를 도와주겠는가?

절에 다니거나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경전을 보고 공부한 사람을 일



삼밀사 묘흥 전수

반적으로 불자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는 삼보에 귀의를 해야 합니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삼보는 불법승으로 그 공덕이 너무나 뛰어나 보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배인 보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보석은 언젠가는 깨지고 부서져 사라집니다. 보석과 같은 그 어떤 아름다운 보배와 소중한 것들도 죽은 뒤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귀의하면 죽은 뒤에도 선업이 되고 복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면서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진리를 의심하고 퇴전하려 합니다. 진리를 믿고 수행을 잘할 때는 법계 호법 성중들이 옹호하고 있지만 마음이 흩어지면 나를 옹호하던 법계 호법 성중들이 떠나갑니다. 종조법설집에 따르면 삼보를 공경하고 비방하지 말지니 부처를 비방하면 재물이 없어지고 교법을 비방하면 자기가 불량하고 스승을 비방하면 자손이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계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회향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 합시다.

〈종조법설집〉 제 2절 수행 편

어버이에게 효순(孝順)하면 자식 또한 효순하다
내가 부모 큰 은혜를 배반(背反)하고 모르는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 어찌 효순 하겠으며
은애중생(恩愛衆生) 내가 먼저 요익(饒益)하게 할 것이니
중생들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모르는데
어찌하여 사회에서 나를 도와주겠느냐

국민이 된 의무로서 나라 일을 도울지니
내가 사는 이 나라의 큰 은혜를 모르는데
어찌 모든 천왕(天王)들이 나를 도와주겠으며
다섯 지혜 항상 밝혀 육행실천 할 것이니
내가 우치사견(愚癡邪見)으로 삼보은혜 모르는데
어찌 범왕(梵王) 제석(帝釋)들과
법계호법(法界護法) 성중(聖衆)들이
나를 도와 주겠는가 인류사회 생활에서
신분귀천 물론하고 다 이러한 것이니라.
이는 삼세(三世) 통하여서 어긋남이 없을 지며
시방세계 배풀어도 배반하지 못할지니
누구나 다 수행하여 결과내증(結果內證) 하여보면
실지증거 나타나서 곧 깨닫게 될 지니라

부모 밑에 고행(苦行)하고 군(軍)의 의무 난행(難行)하면
자기 복이 많아지고 출세고난(出世苦難) 극복(克服)하며
부모덕에 호강하고 군의 훈련 기피하면
자기 복이 없어지고 세상일에 성공 없다.
어릴 때에 제가 어찌 난행고행(難行苦行) 복을 알라
빈부(貧富) 간(間)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인정으로 양육 말고 지성(至誠)으로 기를지라.
오직 다만 정으로서 사랑하고 기른다면
옳은 자식 못 만들고 결국 외도 견게 된다.
그러므로 기를 때는 부모에게 책임 있다.
외도에서 병이 오고 외도에서 우환 오며
외도에서 지조(志操)없고 외도에서 불평(不平)온다.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1년 4월 1일~ 5월 31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종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11>

오온은 물질(색), 느낌(수), 인식작용(상), 다양한 의지 작용(행), 아는 작용(식)입니다.

<지난 호 물질(색), 느낌(수)에 이어>

인식작용(상)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해석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압니다. 그렇게 무엇이라고 아는 마음의 작용을 상이라고 합니다. 상의 작용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을 알아오면서 끊임없이 훈련해서 너무나 능숙하게 진행됩니다. 책을 읽을 때 눈이 책 위를 한 번 지나가면 마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책의 내용을 해석하는 마음이 상의 마음의 작용입니다. 머리를 빗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머리를 빗습니다. 머리의 모양을 생각하고 빗의 각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 상의

만 등의 마음의 의지 작용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상의 마음작용으로 인한 관념적 해석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는 가치정보가 투영되면서 생겨나는 욕심, 화, 어리석음의 마음작용도 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념적 해석에 대해 실재하지 않은 실존성을 부여하고 그걸 믿으면서 스스로 ‘좋다, 싫다’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는 작용(식)

마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용이 아는 작용입니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의 작용을 식이라고 하고 외부 정보를 받아들

만 그 다양한 방법을 대표해서 말할 때는 항상 8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8가지 길을 돌아서 새롭게 도착하는 곳은 다시 바른 견해입니다. 처음의 바른 견해와 마지막의 바른 견해가 말로 표현하면 같은 말로 표현되었지만 지혜의 깊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

수행의 시작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그릇되게 보아왔고 그런 것이 아주 고착화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바른 견해는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수행은 무엇을 체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험을 때 순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체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 뜨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체험입니까? 소리 있으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체험입니까? 존재의 진실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을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해가면서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우리가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는 것은 바로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수행하는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런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 높이를 생각하고 발을 얼마나 들것인가를 결정하는 마음도 상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상의 마음작용은 너무나 능숙해서 자신의 일을 순식간에 스스로 합니다. 우리 존재의 진행에서 오온은 언제나 함께 일어납니다. 상의 마음은 우리 마음작용에 항상 있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고 하면 상의 마음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상의 마음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그것이 관념이라는 말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은 관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행)

아비담마에서는 마음부수로 5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느낌과 상의 마음작용을 제외한 50가지를 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에는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한 마음의 작용은 마음의 의지 작용들입니다.

이는 5문을 인연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한 아는 마음이 의식입니다.

이 아는 마음들은 이름이 아는 마음이지만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이름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단지 처음 대상을 접해서 대상과 반응하는 마음이고 순수하게 대상을 인지하고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실재하는 것은 모양도 위치도 없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수궁됩니다. 그렇게 아는 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붓다가 가르쳐주신 길-8정도

붓다는 당신의 제자들이 걸어 가야할 길을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추어서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어떤 생각을 볼 때 불안한 생각이라는 시각으로 보아서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운 생각이라는 시각으로 보아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름답다는 시각으로 보아서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추하다는 시각으로 보아서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이 일어날 만 했으니까 생각이 일어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신의 작용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생각과 보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입니다. 내가 그릇된 견해로 보았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생겼던 것입니다. 고통이 생겼다는 것이 그릇되게 보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수행은 나 자신을 바르게 봄으로써 내게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바르게 보십시오’라고 해도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른지 알기 위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진실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그 이해가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바른 견해가 됩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수행이 계속됨에 따라서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이해는 다음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더 깊은 바른 견해가 됩니다. 내가 화를 알아차림 하면서 화에 대해 새롭게 어떤 이해가 생겼다면 다음 순간 이런 이해의 견해를 가지고 화를 보게 됩니다. 그 이해가 새로운 화에 대한 바른 견해가 된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은 자신을 좀 더 바르게 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

대도행 기로 전수 열반

총기 41년(2012년) 4월 1일

열반 : 총기 41년 4월 1일(일)
발인 : 총기 41년 4월 3일(화)
장례식장 : 서울 시립동부병원 장례식장

장례위원회 창립 총회

총기 41년(2012년) 4월 24일

내용 : 장례(상조)를 위한 교화 활성화
장소 : 대명리조트
참석 : 록경, 안성, 우인, 원당, 법일, 승원,
법상 정사

중원사 지진불사

총기 42년(2013년) 4월 11일

내용 : 과산수련원 중원사 지진불사

제 17대 통리원장 취임식

총기 42년(2013년) 4월 30일

통리원장 법등 정사
장소 : 총지사 서원당

창종 50년
총리원장 인터뷰

“교도 회사금 사회 회향, 기념사업 여법하게 마무리할 것”



제 19대 총리원장 인선 정사

올 3월로 취임 3년째를 맞이한 제 19대 총리원장 인선 정사로부터 창종 50년의 의미와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과 총리원의 발전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 주

종조님의 창종 정신과 선대 스승님들의 사명감 되새겨 볼 때 정체성과 전문성 높이는 스승과 교도 교육을 확대 강화해야

1. 올해로 종단은 총기 50년에 들어섰고, 내년엔 창종 50주년이 됩니다. 임기 중에 역사적인 종단 반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바라보는 종단의 창종 50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가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을 남기려면 한 세기, 백 년은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종단이 이제 그 반을 걸어왔습니다. 현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과 선대 스승님들의 사명감과 가르침을 현시점에서 되새겨 보고 부족함이 없도록 융합발전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 교화 방편이 달라져야 한다.’는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백 년을 향해 나아가는 종단을 위해 다시금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밝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원장님께서서는 스승으로서 20여 년의 길을 걸어오셨고, 교무로 재직하신 기간을 포함하면 30년을 넘게 종단에 몸담으셨습니다. 종단 50년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단은 나라 정책에 맞게 법회를 이어오며 융합발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원의 주교들을 비롯해 소임을 맡은 스승들이 지혜롭게 교화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 정진 해오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끈기있게 흐트러짐 없이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종단 사부대중의 불퇴전의 수행력과 정진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승단과 교도의 원력이 앞으로 종단 재도약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3. 제 19대 총리원장에 취임하시면서부터 ‘총지종 도약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창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오고 계신데요, 그간 사업의 진행 과정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단 반세기를 갈무리해 보면서 원정 대성사님의 삶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대성사님 일대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출판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대성사님 앞에서 우리의 수행과 신심을 점검하는데 게으름이 없도록 마음을 모아 종조전에 대성사님의 진영을 새로 모셨습니다. 또 종단의 역사를 하나로 모으는 창종 50년사와 불교TV와 공동으로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도 지난해부터 시작돼 오던 것이 연내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4. 기념사업 외에도 정책 사업 그리고 종단 재정 자립, 사회적 역할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과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성과가 있었다면 더불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18대 총리원을 맡아 19대 총리원장을 하는 동안 가장 크게는 세 가지 사업을 주력해왔습니다. 교육과 재정자립, 그리고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시대 흐름에 맞도록 종헌종법 개정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종단 정체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스승과 교도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을 위해 1시간 내 대중 불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례법을 바뀔 나가고 있으며, 교도의 수계 과정을 4단계로 고쳐 신심을 높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영유아, 어린이부터 어르신 복지까지 사업을 확대해 평생복지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5. 제 18대에 이어 19대 총리원장 재임을 하는 동안에도 한결같이 “교도들의 회사금은 최대한 사회로 환원하려 한다.”는 말씀을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의미와 또 이를 위한 실천은 어떤 사업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요?

교도들의 회사금은 스스로의 업을 닦고 복을 짓기 위한 간절한 발원이 깃든 그야말로 정말 ‘무서운 돈’입니다. 이 같은 소중한 회사를 종단 살림살이에 쓰기보다는 자비 나눔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시주자가 해탈과 회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금을 쓰는 것이 종교 본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재정자립이네, 재정사업을 운운한다는 것이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지향해야 할 목적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는 법성사를 재건축하여 분양과 임대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교화지 개척 과정을 통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 현재 총지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또 불교방송, 불교TV이사 종단으로서 불교계에서 주요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 사회 활동의 결과로 그 위상과 책임이 높아졌습니다. 총리원장으로서 종단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는 우리 종단을 포함한 30개 종단이 속해있습니다. 조계종이 회장 종단으로 있으며, 총지종과 천태종, 진각종이 부회장 종단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위상은 지난해 청와대에 초청되어 대통령과 불교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으며, 불교방송과 불교TV는 우리 종단의 주요 사업과 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불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사부대중이 많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며, 사회에 등불이 되는 종단으로 함께 걸어 나가야겠습니다.

7. 원장님 임기가 올해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앞으로 회향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을 위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승직에 와있습니다.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위해 본분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치도 이 생각에서 다름이 없이 총리원의 사업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으로 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창종 50년 기념사업을 여법하게 회향하는 것이 우선이고, 교도들이 바라는 종단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종단 백 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한해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두 코로나 속에서 건강하시길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사진=전서호 기자, 인터뷰=박재원 기자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I

삼밀사 관세음보살 입상 가지불사

총기 44년(2015년) 4월 14일

장소 : 삼밀사 서원당
참석대상 : 기로스승 및 현직 스승,
각 신정회 및 지회 간부

단향사 헌공불사

총기 45년(2016년) 4월 26일

장소 : 단향사 서원당
참석인 : 종령 효강, 총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우인, 재무부장 원당, 종회의장 수현,
교육원장 화령, 사감원장 법상인, 단향사 전
주교 경원, 단향사 주교 혜봉, 서울경인교구장
법경, 부산경남교구장 정인화, 대구경북교구장
안성, 충청전라교구장 지정, 단향사·부산경남
신정회 회장

제12대 종령 법공 대중사 추대법회

총기 47년(2018년) 4월 12일

장소 : 총지사 서원당
집공자 : 총무부장 우인 정사
사회자 : 재무부장 원당 정사
참석 : 사부대중 1000명 참석, 진각종
총리원장 회성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

금가사 수여식

총기 48년(2019년) 4월 16일

내용 : 궁중에서 사용되던 대삼작을 기본으로
하고 종단의 교의 대강을 첨가하여
가운데 장식 ‘수다라’ 변경, 기존 가사
형태와 의미는 그대로 사용함
장소 : 총지사 서원당
참석인 : 법공 종령 대중사, 총리원장 인선
정사, 집행부, 스승 및 교도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밀교란 무엇인가?_밀교의 특징<4>

의례의 활성화①

인도의 종교 의례라는 말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갠지스 강에서 탁한 물에 허리가 지 몸을 담그고 뭔가를 외우면서

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계승된다. 의례적인 장면에서는 종종 그 사회나 집단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명료하게, 혹은 심볼릭

은 이러한 의례의 정의에는 반드시 합치하지 않지만, 의례의 한 과정으로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는 정형화된 반복 가능한 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 인도의 종교 의례를 구체적으로

그러나 어떠한 초월적 존재나 성스러운 것(이것을 사람은 카미(kami)나 불(佛)이라고 부른다.)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두어, 관계하려고 한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式)이라는 복잡한 기계 전체를 올바르게 작동시키기 위한 이른바 스위치이며, 나아가 그것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연료이기도 하다.

유닛(unit) 구조로 형성

세 번째, 유닛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은 의례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인도의 의례나 제식은 여러 개의 유닛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들 유닛은 특정 의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례의 종류와 관계없이 또 시대를 초월해 등장한다. 하나의 의례 안에서 동일한 유닛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복수의 유닛이 또 하나의 틀이 되어 다른 의례 안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례의 유닛을 아는 것은 의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례의 형성이나 변전을 탐구하는 데도 유효한 단서가 된다. 하나의 의례는 여러 유닛의 집합체이지만, 어느 유닛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의례의 특색이 나타난다. 단 유닛 구성의 의미는 반드시 명료하게 읽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불교는 의례에 대해 매우 냉담했다. 부처는 성도(成道) 전에 고행을 포기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브라만들의 제식주의에 늘 비판적이었음은 초기 불교 경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시대와 함께 불교 승려들이 신자들을 위해 주술적인 치병행위를 하는 것을 불교 교단이 묵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행위도 교단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았다. 물론 경전 독송이나 불탑, 불상 예배가 대승불교 시대에는 왕성했지만, 대다수 승려들은 명상과 사색이라는 개인적인 종교 실천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밀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의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변한다. 그리고 위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밀교의례가 등장한다. 이러한 밀교의 의례는 인도 종교의례의 시대적 변전에서 과정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이어>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나로빠의 스승, 미뜨라요기

대학강단에 첫발을 들인 지 30여년의 시간이 흘러 후학들의 학문이력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 3년 전부터 강의를 고사하였다.

생각과 달리 밀교전공자가 많지 않아 최근에는 다시 강의 요청이 있는 지경이 되었다. 밀교뿐만 아니고 불교학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쇠락하는 중이지만 미래 전략과목인 밀교와 티벳불교의 위축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논문심사 요청이 잦았지만 있는 처지인데 지난 주 심사논문에서 저자는 요약하면 인도 나란다사의 스승들이 현대 학자들에 의해 밀교에 진숙했던 것처럼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심사평에는 인도와 동아시아를 오간 나란다대학의 승려들을 이해하기 위해 인도 후기 대승불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티벳불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 이루어졌던 불교교류사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했다.

인도에는 밀교아사리들이 많았다. 이름 전하길 구차하게 생각해 숨은 스승들까지 포함하면 무수한 별처럼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인도밀교가 티벳에 전해질 때 한 갈래는 중인도 나란다사이고 다른 한 갈래는 동인도 위끄라마실라사로 뱅갈, 오릿사에 인접한 곳이다. 미뜨라요기는 불교가 무슬림에 의해 쇠

망해가던 12, 13세기의 인물로 오리사 라다출신이었다.

틸로빠의 스승이었던 라리따와즈라의 제자였기 때문에 티로빠와 동

미뜨라요기는 야샤왕으로 하여금 눈앞의 나무왕관을 옮길 수 있으면 불교도가 힌두교로 개종할 것이고, 나무왕관을 옮기지 못하면 힌두

취를 이루자 예까지피는 다시 전처럼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예까지피는 미뜨라요기로 하여금 우디아나로 보내 밀교를 복구하도록 하였는

관세음보살의 관정을 받아 수행의 장애를 물리쳐
미뜨라요기 저술, 티벳불교 완성 기여에 공로 커

학인 셈이다. 스승은 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12년간 참구하도록 가르쳤는데 미뜨라요기는 깊은 선정에 들어 관세음보살로부터 직접 구전을 들었다. 「청사」에 따르면 미뜨라는 많은 이적을 행한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불교도를 힌두교로 개종시키려는 왕들의 협박이나, 무슬림 침공에 의해 불교사원이 파괴되고 승려가 살해될 때 기적을 행한 이력이 많았다.

미뜨라요기는 장작더미에 사흘간 태워도 살아남았으며, 무슬림인 술탄칸의 침공으로부터 오단따뿌리사의 12,000 승려를 구할 때는 빗은 몸으로 지진을 일으켜 사람과 동물을 떼게 만들었고, 술탄칸의 조복에 맞추어 비로소 이적을 멈추었다. 와라나시의 왕으로부터 귀의를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으며, 불교도를 압박하던 야샤왕을 불교도로 개종시켰다.

교도들이 불교로 개종할 것을 약속하였다. 초월적인 힘으로 나무왕관이 꼭작도 안하자 결국 왕은 감복하여 불교도로 개종하였다. 또한 자야세나왕과 외도학자 아난다가 미뜨라요기를 살해하였으나 오직 삼매의 힘으로 마음을 조복하여 개종시켰다.

티벳불교의 님마빠의 전승에서 예세초갈의 전기에 등장하는 미뜨라요기는 처음에는 유부의 계율을 받고 나란다마하위하라에서 공부하였으며 티벳이름으로는 ‘랍뚜겔외하’라고 하였다.

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수행하였지만 그 계기는 외논의 불모인 ‘예까자피’의 지도를 받았고, 유명한 ‘죄’수행을 닦을 때 예까자피가 자신의 목을 자를 때 해골에서 빛이 쏟아져 나와 관세음보살과 그 권속의 변신이 나왔고, 이들로부터 108가지 성

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은 밀교의 법구인 작은 소북인 다마루를 주면서 수행의 장애를 물리치도록 하였다. 미뜨라요기는 어느날 길을 가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마녀로 변신하지 미뜨라요기는 다마루의 복소리로 마녀를 두 동강 내었다.

이어 자비심이 넘쳐 다른 복소리로 마녀를 이전같이 해주자 마녀는 다시 붉은 옷을 여인으로 변신하고 미뜨라요기를 섬기기로 하였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생기차제와 구경차제의 수행을 완성할 때까지 다마루를 가지고 신력을 부리지 말도록 조언 하였다.

미뜨라요기가 전하는 신통의 일화는 그를 전설적 인물로 생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티벳불교의 완성에 그의 저술이 기여한 공로는 적지않다. 쯡카빠의 「보리도차제론」에는 미뜨라요기가 쓴 <찬다왕에게 보내는 편지>가 중사도품에 인용되

고 있는데, 본명 자야찬드라왕은 붓다가야의 비석에도 그의 스승을 슈리미뜨라라고 하여 이름이 보이고 있다. 자야찬드라왕은 우팔브라데쉬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고, 불교와 힌두교를 함께 믿었으나 1194년 무하마드 구리라는 무슬림과의 전쟁에서 패해 죽었다. 미뜨라요기는 생전에 불법에 입각해 삶의 무상함과 권력의 무상, 법을 닦아야 하는 이유를 역설한 것을 내용으로 함고 있다.

미뜨라요기는 1197-1200 사이 붓다슈리가나로부터 그의 명성을 들은 역경사 또뿌에 의해 중앙티벳에 초청되었고 그가 남긴 「백팔미트라전집」은 밀교 만달라와 성취법을 모은 것이다. 미뜨라요기 전집은 티벳불교의 겔룩빠와 가규빠에 의해 깊이 연구되었고, 쉼수행을 전한 마취쌍계페마를 비롯해 무수한 제자들을 티벳에서 길러내 티벳불교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전 세계에 미얀마 군부 만행 알릴 것”

한국불교종단협의회 3월 18일 성명서 발표

국내 각계 각층에서 미얀마 군부의 만행에 대한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이하 종단협)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 무력진압을 질타하며, 시민학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당장 국민에 대한 살상을 중단하라’는 제하로 지난 3월 18일 발표된 성명서에는 부회장 종단인 불교총지종을 비롯한 30개 회원 종단이 모두 참여했다.

종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는 불살생을 첫 번째 계율로 삼고 있는 부처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살아 숨 쉬고 있는 국가’라며, ‘미얀마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는 부처께서 말씀하는 자유의지의 발로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인간다움의 길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절규’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의지를 향한 불성의 외침에 당장 총을 거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참회로서 민주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산하단체 불교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단체들에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알리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우리 아이 걱정 끝,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요”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줌으로 오리엔테이션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서초구립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원장: 최유정)에서 원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3일간 온라인 줌(Zoom)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2월 24일, 25일, 3월 2일에 각 연령별, 반별로 시간대를 나누어 총 30여 명의 학부모들을 온라인 줌으로 초대했다. 2021년 신학기 교육 커리큘럼 관련 안내와 어린이집 내부 시설 소개, 담임선생님 상견례 등이 진행되었다.

최유정 원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

해 원내로 출입할 수 없었던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현관에서 안내 책자만 배부했었는데,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줄곧 생각해왔다.”며 “자세한 설명과 프레젠테이션, 즉석에서 질문 응답이 가능한 온라인 줌 기능으로 작년보다 원활하게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또 “이번 기회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하여 학부모들이 본원을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모 교육, 학부모운영위원회 등의 등 비대면으로도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 예방 ‘두뇌건강 학습지’ 배부

재단산하 석관실버, 온라인 강좌도 오픈예정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에서 운영 중인 두뇌건강증진센터가 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특화사업을 지난 3월 2일부터 새로이 시작했다.

이날 센터는 어르신이 가정에서 자율학습을 통해 인지기력 향상 및 치매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두뇌건강 학습지 82권과 서울시로 부터 지원 받은 마스크를 함께 배부했다.

두뇌건강 학습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센터에 방문하면 직접 수

령이 가능하다. 스스로 학습지를 풀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오프라인 수업 두뇌건강 클라쓰도 지난달 8일부터 운영 중이다.

두뇌건강 클라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자원봉사자와 함께 학습지 풀이를 진행하는 수업으로, 현재는 성황리에 접수가 마감되었다. 이밖에도 언제 어디서나 치매예방을 위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두뇌건강 ON-AIR’ 강좌도 센터 홈페이지 내에 오픈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성명서 전문

미얀마 군부는 당장 국민에 대한 살상을 중단하라!

미얀마는 불살생을 첫 번째 계율로 삼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살아 숨 쉬고 있는 국가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역사의 큰 스승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셨으며, 소위 육사외도라고 불리며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유신론, 숙명론, 유물론, 회의론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불교라는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셨다.

부처님은 일체중생들의 공포심과 관념을 제거하고 바른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바른 견해를 수행, 즉 행복의 첫걸음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와 스승의 권력에 대하여 “신앙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없으면 불안하고 무력해지고 말지 않겠는가”라는 깊은 고민 끝에 하여금 자각케 하여 깨달은 자가 되게 하였으니 내 마땅히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리라”는 선언으로 중생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길을 여셨다.

미얀마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지의 발로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인간다움의 길’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절규이

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살상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의 성불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는 총을 들어 악행을 저질러야 하고 자유가 박탈된 자는 총에 맞서 피를 흘리며 쟁취하려 한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지만, 한 치 빈틈없는 인과는 결국 자유의지의 편이며 민주화를 쫓피우게 한다. 이것이 인류가 걸어온 길이며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 미얀마 군부는 자유의지를 향한 불성의 외침에 당장 총을 거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참회로서 민주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수미산 같은 악행을 소멸하는 일이며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에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산하단체 불교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미얀마군부의 만행을 알리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불기 2565(2021)년 3월 18일

(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총지종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재)대한불교일통선교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본원종	(사)대한불교원웅종	한국불교여래종
보국불교염불종	(사)대한불교조동종	(사)대한불교법상종
(재)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대중불교불이종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2월 21일 ~ 3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건화사	법상	3/20	20,000
관성사	황성녀	3/3	10,000
	인선	3/20	20,000
	김정희	3/3	10,000
관음사	신막심	3/15	10,000
	해정	2/26	10,000
기로스승	해정	3/19	10,000
	공덕성	3/20	20,000
	상지화	3/20	10,000
	수증원	3/20	10,000
	밀공정	3/20	10,000
	총지화	3/20	10,000
	법수원	3/20	10,000
	선도원	3/20	10,000
	법지원	3/20	10,000
	일성혜	3/20	10,000
	사홍화	3/20	10,000
	인주화	3/20	10,000
	진일심	3/20	10,000
	시각화	3/20	10,000
	최상관	3/20	10,000
	연동원	3/20	10,000
단음사	신막심	2/22	20,000
단향사	지홍	2/28	10,000
동해사	송인근	2/22	10,000

동해사	김진화	3/9	10,000
	법선	3/20	10,000
만보사	최옥순	3/10	10,000
	강명순	3/15	10,000
미미위 세곡키움 센터	선해중	2/25	10,000
	문주하	2/26	10,000
밀인사	록경	2/21	10,000
	법수연	2/21	10,000
법천사	정정희	3/3	5,000
	반아심	3/2	10,000
벽룡사	승원	3/20	10,000
	묘원화	3/20	10,000
벚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3/4	50,000
	명안	2/25	10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2/25	10,000
	이진승	3/1	10,000
	남영애	3/2	30,000
	김갑선	3/19	10,000
	나석원	2/25	10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여진	2/25	10,000
	김윤수	3/2	10,000
수인사	정순득	2/26	10,000
실보사	박현정	3/3	10,000

실보사	무명씨	3/4	20,000
	관득	2/25	10,000
실지사	연화법	2/26	10,000
	정혜정	2/26	10,000
	이도현	3/8	10,000
	이서현	3/8	10,000
	유승우	3/8	10,000
	덕광	3/20	10,000
	보현	3/20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2/25	5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3/2	50,000
운천사	반야화	3/4	5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2/23	50,000
	하재희	2/25	50,000
	연명구	2/27	10,000
	구미자	3/2	10,000
자석사	도우	3/9	10,000
	지현	3/9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3/10	50,000
정각사	탁상달	3/2	10,000
	안한수	3/6	10,000
	무명씨	3/10	15,000

지인사	승효제	3/8	10,000
	승효제	3/15	10,000
	이지희	2/25	50,000
초록 어린이집	강혜란	2/25	10,000
	최해선	3/2	10,000
총지사	백귀임	3/10	10,000
	최영아	3/15	10,000
	원당	3/15	10,000
	묘심해	3/15	10,000
	김정환	3/15	10,000
	홍수민	3/16	10,000
	신성희	3/18	10,000
	신명준	3/18	10,000
	신현태	3/18	10,000
	무명씨	3/3	10,000
	무명씨	3/7	10,000
	우인	3/8	10,000
화음사	보명심	3/8	10,000
	최영미	3/10	50,000
	강승민	3/10	5,000
	강점미	3/12	30,000
	우인	3/15	10,000
	보명심	3/15	1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3/10	5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④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부처님의 본생담을 담은 자타카에 속하는 『육도집경』 제1권 <報施度無極章> 제2장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살바달 왕은 중생에게 보시하여 그들이 구하는 바를 마음껏 주었으며 액난을 막 하게 여기고 구제하기에 항상 비창(悲愴)함이 있었다. 제석전은 왕의 인자한 은혜와 덕이 시방에 덮인 것을 보아 자신의 지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가서 시험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매로 변화하고 변방의 왕을 비둘기로 변화시켰다.

비둘기는 왕의 발밑으로 들어가서 땀땀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때는 내 먹을 것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왕은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 본인의 살을 주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달아서 비둘기의 무게와 같게 하려 하였다. 하지만 비둘기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왕은 자신의 몸을 자꾸만 베어서 보았으나 노상 그러하였다. 살을 베어낸 자리가 아프기가 한량없었으나 왕은 인자한 마음으로 참으며 비둘기를 살리기만 원하였으므로 신하에게 명하여 나를 죽여 골수를 달아서 비둘기의 무게와 같게 하라고 하였다.

그때에 매와 비둘기는 본래의 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왕의 보시가 제석전의 지위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부처가 되어 중생의 곤역을 구제하여 열반을 얻게 하고자 함임을 알고 곧 삼체를 낮게 하였다.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생명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생명의 무게가 똑같다는 인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수많은 동물들은 공장식 축사에서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좁은 틀에 갇혀 수명보다 일찍 목숨을 잃는다.

때로는 실험실에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고, 좁은 수족관에서 구경거리가 되다가 죽어가고, 생존 조건과 전혀 맞지

<본생경>에서 얻은 교훈 ③

생명의 무게는 같다

않는 동물원에서 일찍 생을 마감한다.

뼈아픈 살처분 현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염병이 발생하면 변경 3km 이내의 모든 가축을 살처분 한다. 병들지 않은 건강한 가축들이 단지 인간이 정한 기준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고 있다. 지난겨울에도 조류 독감이 시작되었다.

동물복지 농장인 경기도 화성시 산안마을도 그런 경우에 처했다. 산안마을은 야마기시즘(Yamagishism)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구성원들은 건강한 닭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살처분 방침을 따르지 않고 저항했다.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네 번이나 지나는 동안 농장의 닭들은 단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고 건강했기 때문에 이미 감염 위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정부는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았다. 쌓여가는 130만 개의 달걀들과 축산업 취소 위협까지 있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두 달 만에 가슴 아픈 살처분을 받아 들여 3만 7천 마리를 떠나보내야 했다.

정부는 3km라는 잔인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범위 확대를 고집하기보다는 백신 등 다른 예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충분한 양의 백신이 준비되어 있고 비용도 오히려 살처분 때보다 적게 든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가동한 축산차량의 확진 농장 방문 예방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에서는 인간이 인종과 성별, 직업, 능력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동물도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감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감금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생물 평등의 불교

불교에서는 중생을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으로 나누고 태난습화(胎卵濕化) 4생(四生)으로 구분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정에 포함되고, 4생 가운데 胎生에 포함된다. 즉, 인간이 다른 동물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물론 지금은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청지기라는 해석을 덧붙이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완전히 구분되는 특별한 무언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긴다. 인간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별 의미 없는 끔찍한 동물실험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고기를 먹지 않고도 영양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엄청난가 많은 가축들이 공장식 축사에서 고깃덩어리로 취급되고 있고, 비좁은 수족관과 동물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동물복지에도 관심을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나온 비둘기와 왕의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모든 생명의 목숨이 갖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제1계(戒)인 불살생(不殺生)을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죽이지 않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구제하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감정이 있는 유정중생(有情衆生)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할머니의 봄날

장철문

별 아깝다
아이고야 고마운 이 별
아깝다 하시던
말씀 이제사 조금은 알겠네
그 귀영랭이나마 조금은
엿보겠네
없는 가을고추도
내다 넣고 싶어하시고
오줌장군 이고 가
발 가생이 호박
몇구덩이 묻으시고
고랫재 이고 가
정구지 밭에 뿌리시고
그에는
마당에 노는 닭들 몰아 가두시고
문이란 문은 다 열고
먹감나무 장롱도
오동나무 만달이도
다 열어젖히시고
옷이란 옷은 마루에
나무널에 뽕나무 가지에
즐비하게 내다 너시고
묵은 빨래 처덕처덕 치래
빨랫줄에 너시고

그에는
가마솥에 물 절절 끓여
코흘리개 손주놈들
쥐어막으며 끌어다가
까마귀가 아재, 아재!
하고 덤빈다고
시커먼 손등 탁탁 때려가며
비트는 등짝 퍽퍽 쳐대며
겨드랑이 민둥머리 사타구니
옆구리 쇠뎌 다 벗기시고
저물녘 쇠죽술에
불 넣으시던 당신
당신의 봄별이
여기 절 마당에 내렸네
당신 산소에서
내려다보이는 기슭에는
가을에 훌린 비닐 쪼가리들
지긋대들 래우는
연기 길게 오르고
이따금 팽깃날에
돌맹이 부딪는 소리 들리겠네
당신의 아까운 봄별이
여기 절 마당에 내려
저 혼자 마르고 있네



불교서적 월간베스트(3/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4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5	화염경을 머금은 법성계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6	떡돌 해설서 : 바르도에서 뉘지 않고 해탈하는 법	중암선해	금빛소리
7	나는 관참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	법륜스님	정토
8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낯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원영광오 / 정원규	불광출판사

벽룡사 교도

노루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 전문취급

대신상사 (도장공사 단종면허 업체)

취급 품목

- ▶방수공사전문업체
- ▶각종페인트 도·소매
- ▶인테리어 집칠
- ▶기와칠 벽돌방수
- ▶공사청부



삼화 페인트

NOROO

대표 김치승

주소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92-261

전화 02) 873-9600 / 02) 877-3610

팩스 02) 873-4113

야간 02) 873-1892

핸드폰 011-283-3610

종립 동해중학교 새 학기 맞아 분주 입학식, 학부모 총회, 공모사업 등 한창



동해중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3월 2일 비대면으로 각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3월 2일 신입생 입학식을 시작으로 교문을 활짝 열었다. 입학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방송실에

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각반 교실에서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은 6개 반 총 188명으로, 지난해 175명에서 13명

이 늘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열고, 교장을 비롯한 새담임 교사, 교직원 등의 소개를 마쳤다.

또 홈페이지로 배포한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 도움 자료’를 바탕으로 동해중학교 학사일정과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방지에 대해 설명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았다.

송인근 교장은 이날 총회에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

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중 단연 으뜸은 학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녀 사랑일 것”이라며,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샘솟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중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자기 계발 및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에도 한창 준비중이다.

현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학교덧발 운영학교 △학생 자치 활동 중점학교 △창의 공작실 운영학교 △창의 융합형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운영학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동해인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포교 일불회에 200만원 기탁 부처님오신날 맞아 위문품 자비 나눔

종단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3월 18일 군포교를 위한 성금 200만원을 일불회(회장: 장세동)에 전달했다. 일불회는 지난 20여년간 정기적으로 군법당 후원을 해오는 재가불자 모임이다. 이번 성금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일부 종단의 성금과 함께 보내어져 육군 제 28사단 정립사 법당, 25사단 용

주사 법당, 호국적정사 법당, 해병 2사단 호국청룡사 등 6곳에 군장병 위문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일불회 송령호 총무는 “코로나19로 한동안 휴가와 외출이 제한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낸 장병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하겠다.”며 “늘 군포교에 앞장서는 불교종지중에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자료사진 = 작년 부처님오신날 서울·경인교구와 신정회의 국군장병 위문 모습

전했다. 지난해에는 서울·경인교구와 신정회가 일불회와 함께 직접 군법당을 방문에 봉축위문품을 전달

한 바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종단은 참여하지 않고, 일불회에 위임을 하게 됐다.

총/지/문/답 ⑦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육자의궤

육자의궤(六字儀軌)란 총지종에서 행하는 법회 의식과 염송의궤법의 중심을 이루는 법요(法要)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염송(念誦)하는 절차와 방법 등 총지종의 불사의식(佛事儀式)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총지종의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준제관음법과 대승장엄보왕경으로 교화하라.”는 꿈을 꾸시고 육자의궤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의궤의 주요 내용은 실천서원으로 시작해서 참회, 오대서원을 한 후 중생의 소원을 성취하는 사종의 준제관음법과 실지정진 법으로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옴 마니반메훔’ 염송(念誦)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의 원리를 ‘육자의궤’를 통해 실현하고자 의궤를 구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준제관음법은 정법계진언(옴람),

호신진언(옴치림),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 준제진언(나무 샏다 남 삼삼삼 못다 구치남 단야다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기 탄생

[하음사]

강순란 회장 손자 이태운

이영희 보살 손녀 송서아

최경녀 보살 손자 백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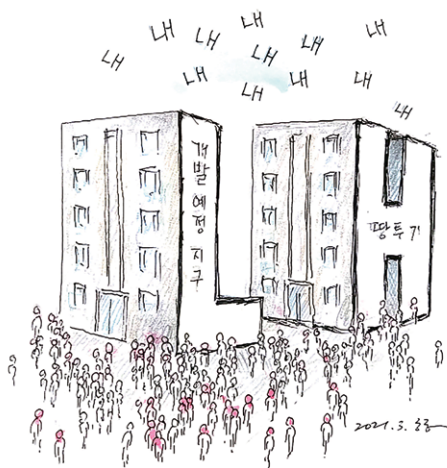
임용고시 합격

[삼밀사]

허정남 보살 손녀 김문주

총 지 스 케 치

도대체 무슨 일이...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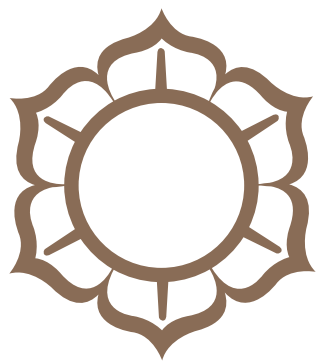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떠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하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종보실
- Tel: 02-552-1080
- 보낼 곳: 우편 및 이메일
- E-mail: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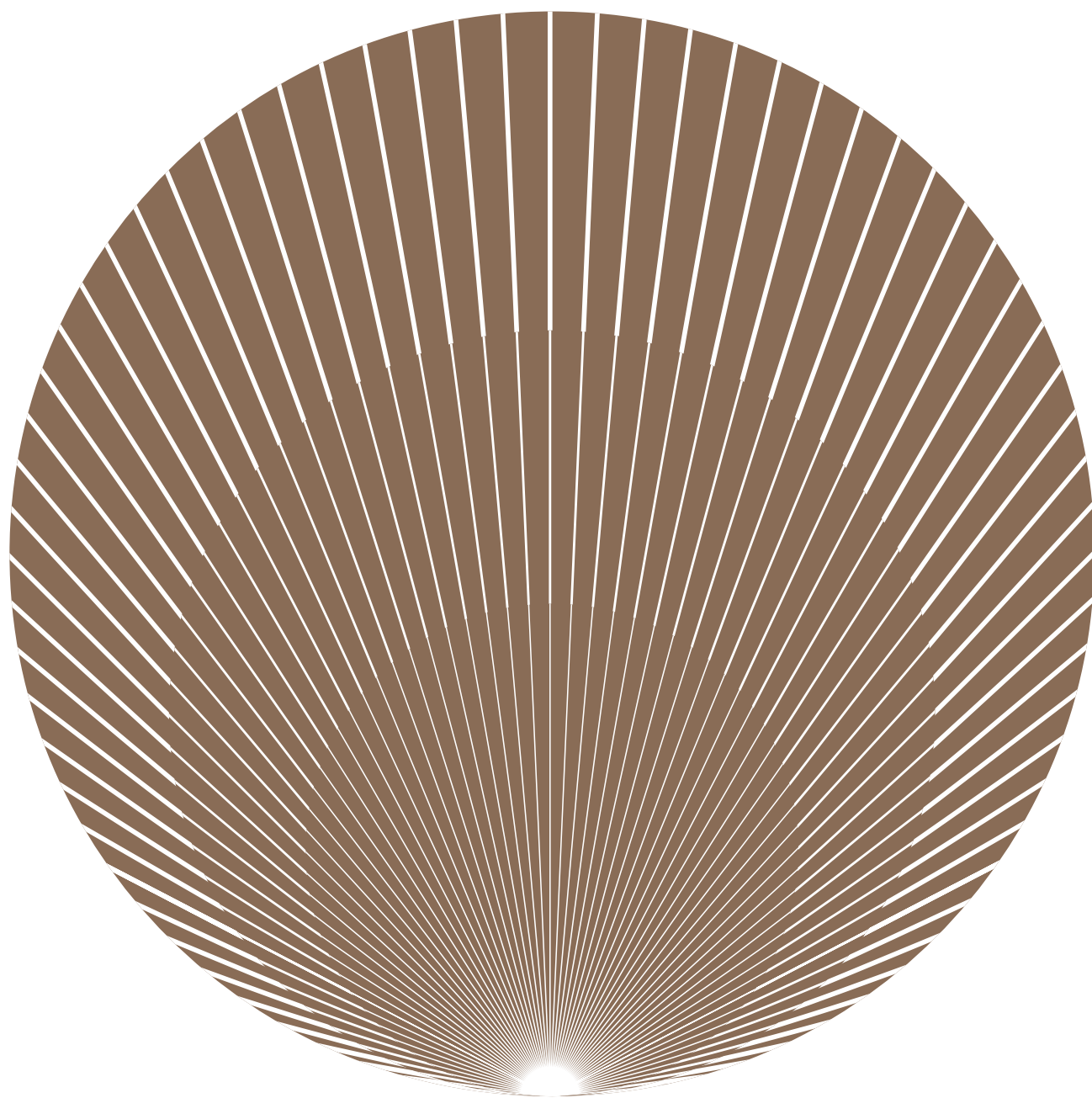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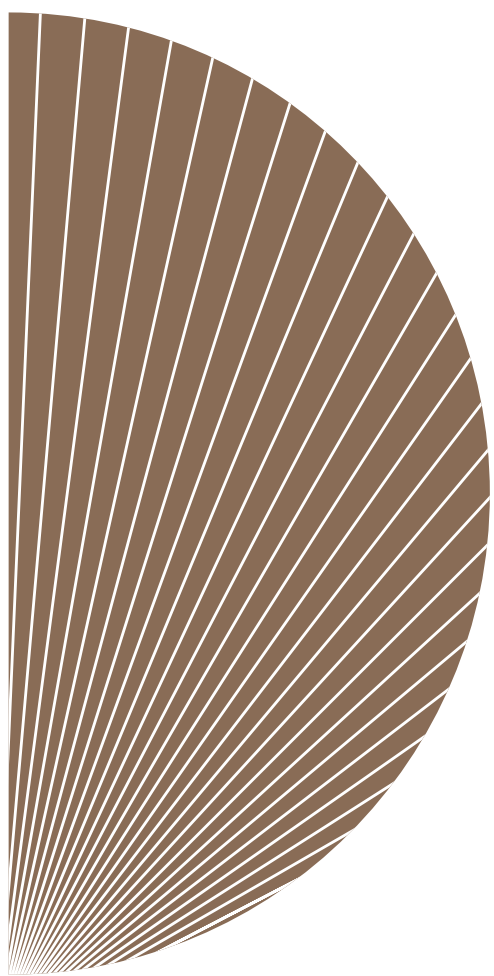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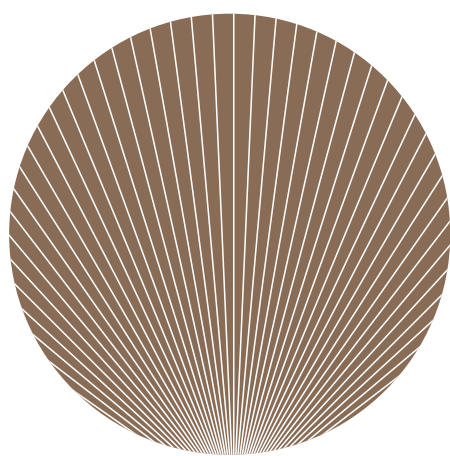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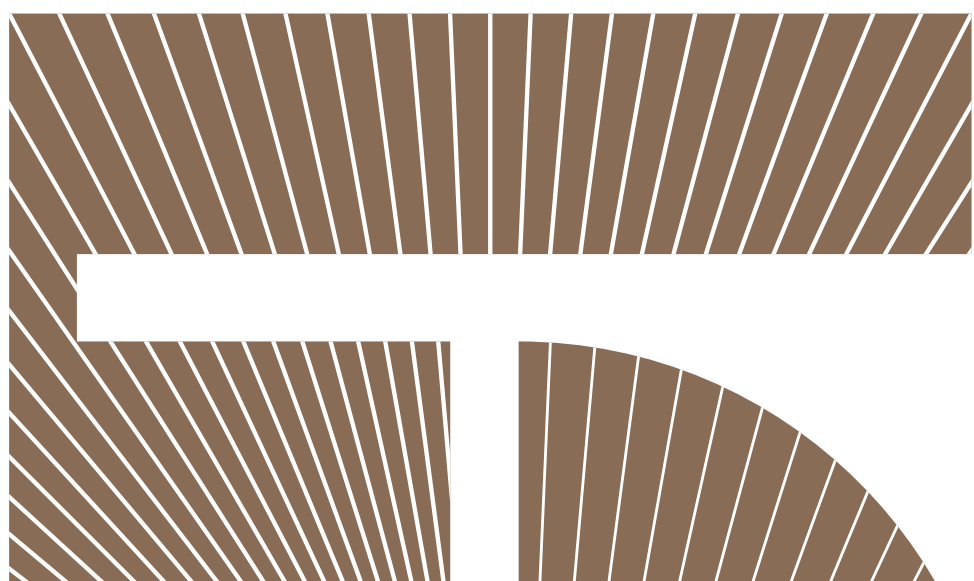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總
指
指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
史



마감 일정

2021. 04. 30.



불교총지종